

2월 10일 사르나트에 도착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다메크 스투파 일원을 행선하고 있다.

“우리 한걸음이 뭇중생 불연 맺기로 이어지길”

자승 스님, 2월 10일 녹야원서 첫 법문… “차별없는 정진” 당부

“포교만이 조계종단의 살 길
매 순간 수행이라 생각하자”

“43일 갖은 어려움 예상되니
순례 기간 상호 배려” 당부
순례단 마음가짐 새로 다져

인도 사르나트=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월 10일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사르나트 녹야원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서는 이례적으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법문이 있었다.

자승 스님은 중국 선종 3조 승찬 대사의 〈신심명〉에 나오는 첫 문장 ‘지도무난 유혐간택’ (至道無難 唯嫌揀擇)을 건네며 분별심 없고, 차별없는 정진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아홉 스님의 엄동설한 천막결사를 시작으로 3년간 국난극복 자비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평화방생 순례를 진행하며 회향에 앞둔 자자 때마다 사부대중이 차별없이 함께 정진하고 그 원력을 바탕으로 전법포교를 활성화하여 불교 중흥을 이끌자고 강조한 바 있다.

스님은 “여기 스님들이 법문할 때 신도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신도들도 스님들에게 많이 들은 법문이 있을 것이다. 분별심만 내지 않으면 깨친다고 우리 스님들이 한 이야기다. 그런데 스님 2000명씩 앉아서 정진하지만 깨우쳤다고 법문하고 나서는 이가 없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지다보니 도를 이룬 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우리가 깨달음 자체를 어렵게 생각해서 깨달아도 깨달았는지 모른다. 신통방통 재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이치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며 “열심히 정진하면 이치는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우리가 순례를 하려는 순간 다 내려놔야 한다. 누구 하나의 공도, 화도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기에 오기 까지 3년을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 43일의 인도순례는 그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와 배려 뿐”이라고 당부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2월 10일 초전법륜지 녹야원서 법문을 하고 있다.

사부대중 신심 진작, 불교 중흥

스님은 또 유적만 남은 인도 성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전법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회주 자승 스님은 “이 자리가 기독교 성자의 자리라고 하면 과연 유적만 남아있을까, 우리가 순례하는 8대 성지는 유적만 남아 있다”며 “그렇다면 1700년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는 과연 어떨까. 문화재이기에 조금은 다르겠지만 20년 후면 이 같은 유적처럼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스님은 “늘 포교 만이 우리 종단의 살길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며 “순례를 지켜보는 불자들이 신심을 내고, 그 신심을 낸 불자들이 이웃종교인, 무종교인을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한국불교 중흥이자 순례의 의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인도순례에 참여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신청한 순간부터가 바로 순례이며 수행”이라며 “우리의 순례는 2월 9일 종정 스님을 증명으로 고불문을 올릴 때부터 시작됐다. 매 순간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자”고 말했다.

끝으로 자승 스님은 “순례단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을 비롯해 주요 사찰 주지 스님 등 어떻게 보면 편하게 신도들에게 대접받을 위치에 있는 이들이 모두 평등하게 함께 하고 있다. 사회에서 위상있는 재가자들도 마찬가지다”며 “여기서는 자승도 똑같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걷고, 똑같이 자며 차별이 없고, 청규와 질서를 지키고 배려하는 순례로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법문에 대해서는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걸으면서 입재와 회향식까지 대중에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삼보사찰 순례 입재와 해제 당시 대중들에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인도순례는 시작부터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자비심으로 거둔 인도 강아지 ‘순례’

1주차 상월결사 인도순례 이모저모

2월 13일부터 순례단과 동행
인도 불자마을서 찾아온 생명
어미 잃은 듯 마르고 힘 없어
묵언 중인 덕조 스님이 보살펴
수행 우려에도 “이 또한 수행”

생명존중을 기치로 인도 부처님 성지를 순례 중인 순례단이 자비심으로 하나의 생명을 순례대중으로 맞이했다. 바로 강아지 ‘순례’ 다.

2월 13일 불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유피주 새드푸르에서는 한 강아지가 아침공양 장소였던 키산 초등학교(인터컬리지)에 찾아왔다. 어미가 없는 듯, 비쩍 마르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 강아지는 마침 마을주민들의 환대에 화답하고 있던 회주 자승 스님 곁으로 다가갔다.

인도주민들의 요청으로 스님들과 주민들이 사진을 찍던 그때 회주 스님 앞에 있던 그 강아지에게 순례 대중 스님 중 한명이 말했다. ‘앉아’. 신기하게 말을 알아듣는 듯 이 강아지는 사진 찍는 내내 영특하게 알아듣고 따랐다.

이후 순례단은 다시 행선에 나섰다. 주민들은 마을 어귀까지 순례단을 환송했다. 어귀까지만 따라오는 줄 알았던 이 강아지는 마치 순례단을 외호하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왔다. 따라만 왔으면 뒤로 쳐져 다시 마을로 돌아갈 줄 알았건만, 순례단에 앞서서 길을 열었다.



2월 13일 순례단에 합류한 인도 강아지. 자승 스님은 강아지 이름을 ‘순례’로 붙였다.

결국 이 강아지는 주 경계를 넘어 순례 회향지인 비하르주 쉬브람푸르까지 함께 했다. 작은 강아지가 하루 20여 km를 걷는 순례 일정을 함께 하기는 무리다. 더군다나 이 강아지 몸에는 이와 벌레들이 많이 달라붙어 약한 상태였다. 하지만 먼 곳까지 이미 순례단을 따라오고, 어미가 없어 마치 스님들을 어미처럼 따르는 강아지를 굳이 내칠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 인도에서는 들개들이 적게는 2~3마리, 많게는 십 수마리가 떼를 지어 다닌다. 내쳐진 이 강아지의 미래는 뻔했다.



‘순례’가 덕조 스님의 무릎에서 자고 있다.

결국, 회주 자승 스님은 생명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순례단에서 이 강아지를 보살피기로 했고 이름을 ‘순례’라고 했다.

강아지 순례는 유난히 덕조 스님을 따른다. 후문에 의하면 덕조 스님이 취침 전 씻기고, 먹을 것을 챙겨준다. 묵언 수행 중인 스님도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엾은 중생을 보살핀다는 마음에서 또 다른 수행으로 순례를 살피고 있다.

덕조 스님과 같은 조에서 순례 중인 선광 스님은 묵언 수행 중인 스님을 대신해 “전생의 업으로 개로 태어났지만 회주 스님과 순례단 스님들을 만나 그 인연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 훌륭한 수행자가 될 것이고, 아마 더 나아가서는 깨달은 선지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수행에 지장이 가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강아지가 있던 마을에서 우리로 치면 백리길이 넘게 순례단을 홀로 따라왔다. 짐승이라고 보면 신경이 많이 가겠지만 인연이 깊은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더불어 사는 도반”이라며 “더군다나 부처님이 가셨던 길에서 거둔 생명이니 이것 또한 수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노덕현 기자

2주차(2.16~2.22) 순례 일정은

부처님 성도지 보드가야 마하보디사원서 법회 ‘장엄’



2주차로 접어든 상월결사 순례단은 석가모니 부처님 성도지인 보드가야로 나아가게 된다. 2월 16일 사사람에 도착한 순례단은 숙소에서 개인정비를 취한 뒤 17일부터는 다시 숙영하며 보드가야로 행선하며 순례를 진행한다.

2월 21일 보드가야에 도착한 순례단은 수자타 마을을 순례하며, 2월 22일에는 부처님 성도지 보드가야 마하보디대탑에서 오전 8시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보드가야는

보드가야는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은 장소로 유명하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는 기원전 3세기경에 아쇼카왕이 세웠다는 마하보디 대탑이 서 있다. 높이가 55m나 되는 이 탑은 방추형의 9층탑으로 3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는 웅대한 탑이다.